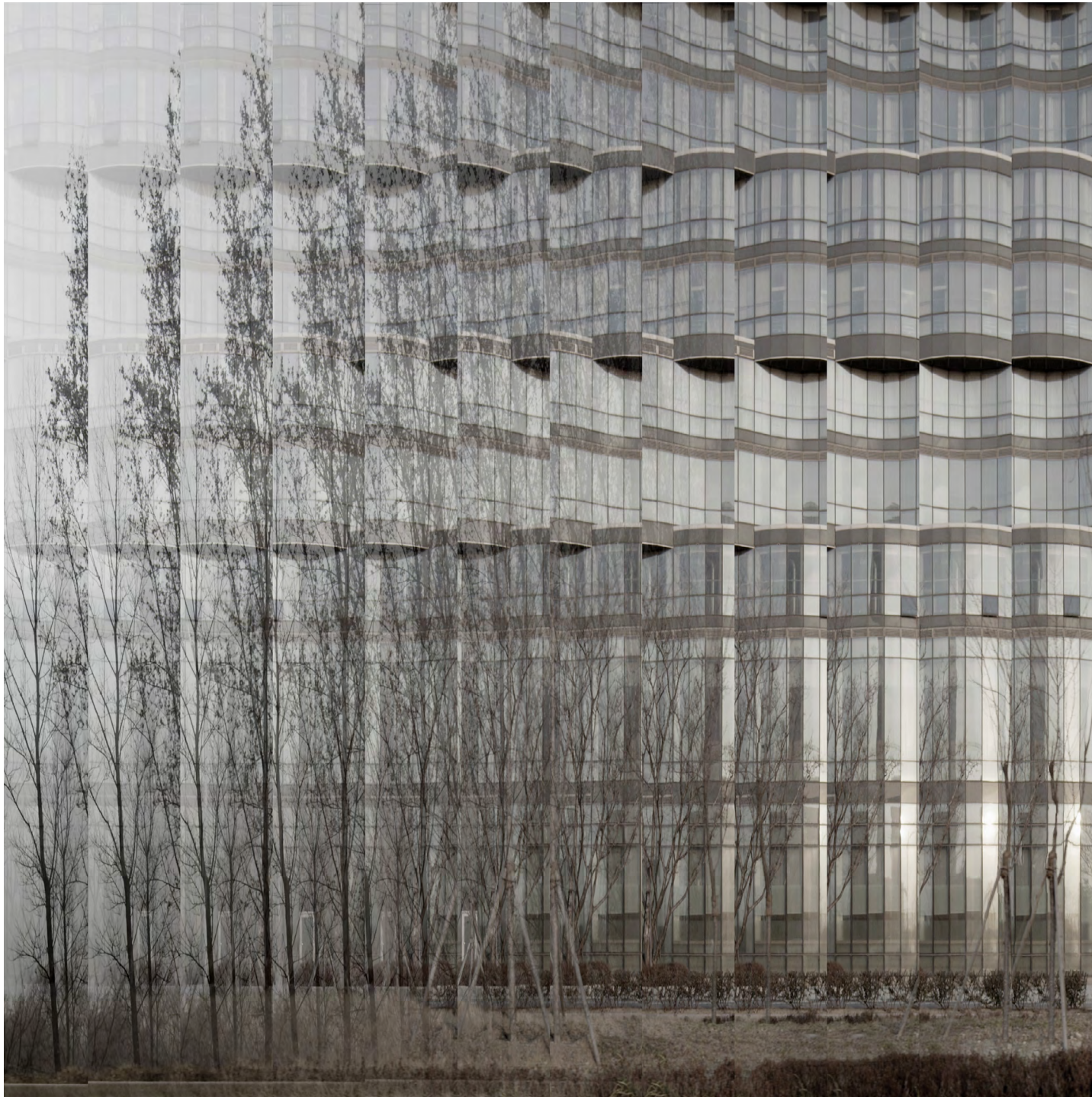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UNITED VISUAL ARTISTS
PRINCIPLES OF MOTIO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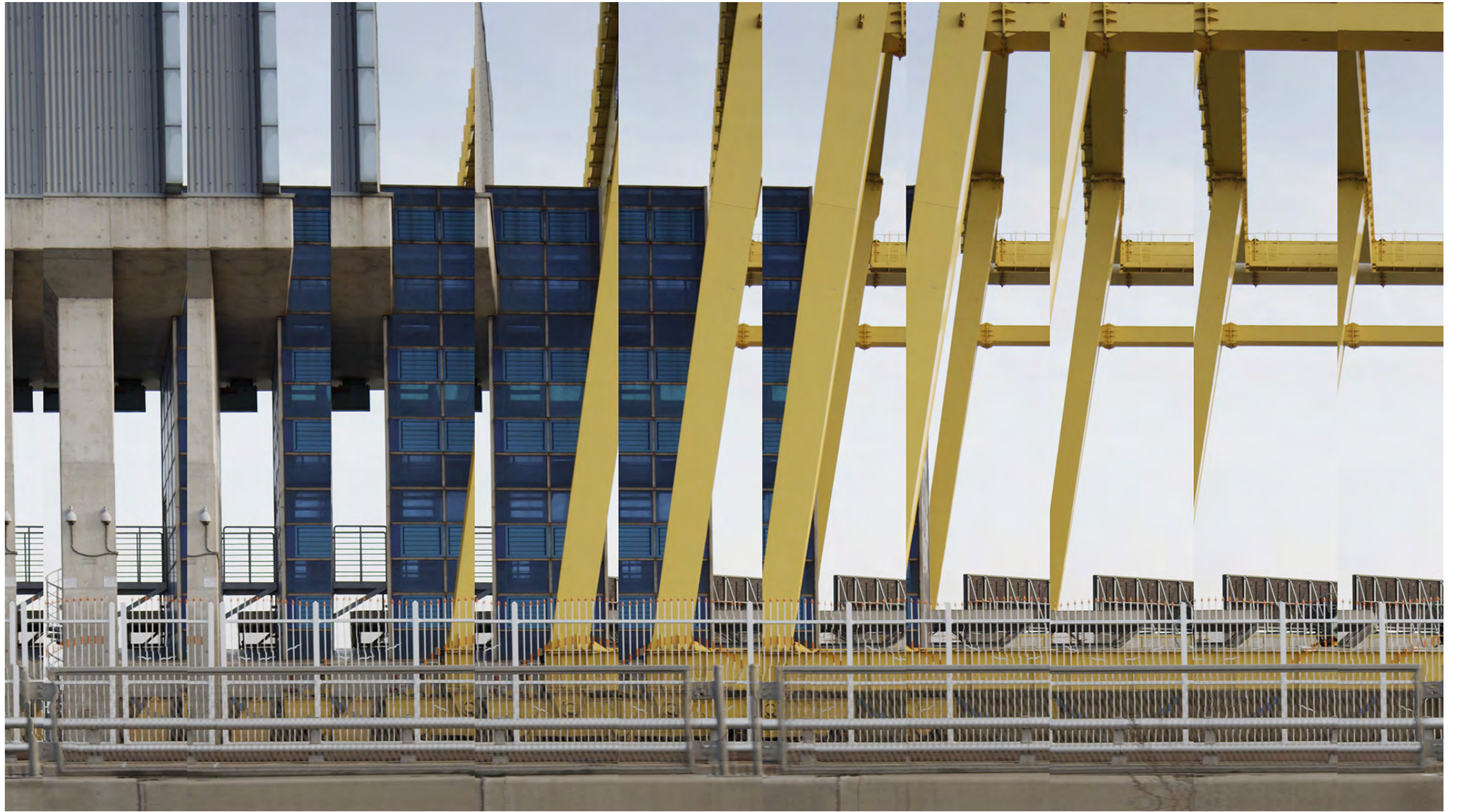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움직임을 인지할까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무엇 때문에 생겨날까요?

눈에 남은 잔상이 어떻게 움직임을 인지하고,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만들고, 연속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움직임으로 바뀌는지, 또 움직임의 깊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지난 세기 이후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수많은 이론이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운전은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패턴, 리듬이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경험입니다. 차창 밖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과 스쳐가는 도로표지들에서 느껴지는 리듬,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는 휠 허브의 패턴이 하나되는 것, 바로 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전 경험을 추상적인 요소들로 해체해 각각의 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또 핵심 요소를 활용해 운전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 UVA가 작품으로 대답을 건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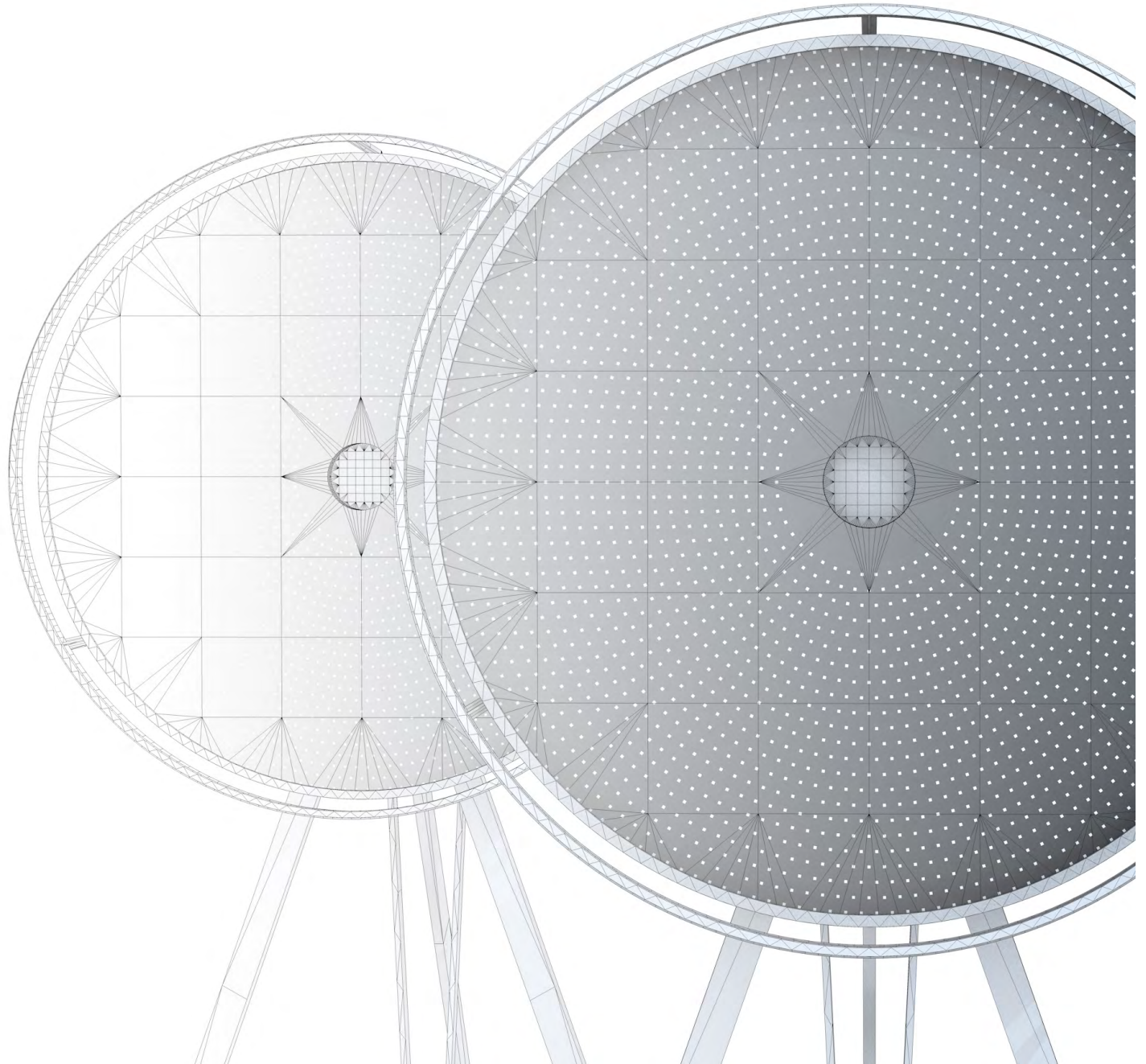


움직임의 원리 PRINCIPLES OF MOTION (2014)

움직임의 원리에서, UVA는
시시각각 변하는 추상적이고 영화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일련의 키네틱(움직이는) 조각들을
제작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에 물음표를 던지도록
설계됐으며, 기하학, 빛 애니메이션, 필름 스피드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이끅니다.

느릿느릿 돌아가면서 간격을 달리하는 빛,
그리고 이 빛을 투사한 추상적인 표면 패턴과
회전하는 디스크를 기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역을 자동차로 달리면서 촬영한
영화적인 장면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기하학과 리듬이 접목되면서 추상화된 낮선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강을 건널 때 스쳐가는 다리 구조물, 머리 위로
흘러가는 꼬여있는 전선들.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장면들이 스크린이라는 캔버스 위에
여러 겹으로 반복되어 일종의 추상화가 됩니다.







모멘텀(Momentum) / 런던 Barbican Curve Gallery (2014)

약력 BIOGRAPHY

United Visual Artists (UVA)는 조각, 설치미술, 라이브 공연, 건축 등 광범위한 분야를 결합하는 예술가집단으로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UVA는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 기술과 재료를 계속 진화시키고, 이를 통해 예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UVA는 현실과 가상 경험 사이의 긴장감, 즉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현상의 창조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을 통해 이들은 사물의 복잡한 속성들을 걸러 본질만을 추출해냅니다. UVA는 2003년 매튜 클라크 Matthew Clark, 크리스 버드 Chris Bird, 애쉬 네루 Ash Nehru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UVA는 Artwise Curators, The Creators Project, La Gaité Lyrique, National Maritime Museum, Opera North, Royal Academy of Arts, Victoria & Albert Museum,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The Serpentine Gallery, YCAM Japan 등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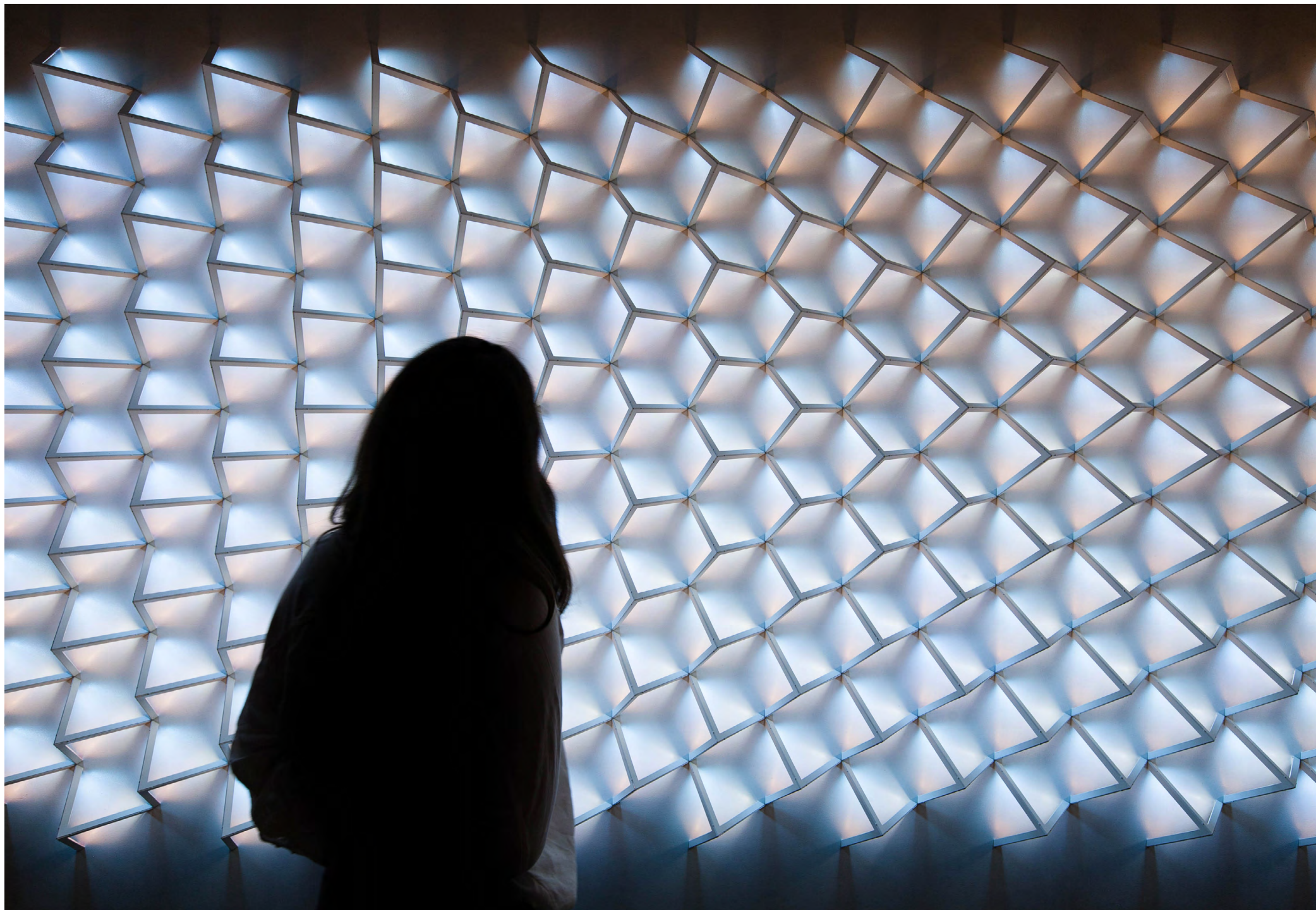
UVA의 작품은 South Bank Centre, Wellcome Collection, The British Library를 비롯한 유명 기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베이징, 홍콩, 멜버른, 뉴욕, 파리, 상파울루,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이페이, 도쿄 등 세계 전역에서 이들의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의 탁월한 라이브 공연 디자인은 Tate Modern Turbine Hall, Serpentine Gallery, New York Madison Square Garden 등으로부터 작품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UVA가 제작한 빛과 소리에 반응하는 조각작품인 <볼륨(Volume)>은 D&AD Awards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London Design Museum이 주최한 '올해의 디자인' 쇼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빛의 속도(Speed of Light)>는 2010년 '올해의 디자인' 수상 후보로 선정됐으며, 2011년에는 <북극권(High Arctic)>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UVA는 키네틱 설치미술 작품인 <코러스(Chorus)>를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0년 Prix Arts Electronica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1년에는 <Speed of Light>가 Creative Review Annual에서 수상했으며, 그해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http://uva.co.uk>



어레이(Array) / 일본 Chuya Museum (2008)



언제나/결코(Always/Never) (2013)

